

### 서울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개최

6월 '생태전환교육 행동의 달' 지정

서울시교육청은 환경의 달인 6월을 '생태전환교육 행동의 달'로 지정하고, 2일부터 30일까지 '2025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내 1395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해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생태전환교육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서울 전역에서 진행 '함께 하면 가능해! 지구를 위한 실천, 시작은 오늘부터!'라는 주제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5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에서는 '함께 배우고, 함께 느끼고, 함께 행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말하고'의 5가지 생태전환교육 전략을 기반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실 ▲명사 초청 주제 강연 ▲제로에너지 건축물 탐방 등 체험형 교육과, ▲시네마 그린틴, ▲스쿨 씨어터, ▲세계 청소년 기후 포럼 등 문화·토론 프로그램 등 총 14가지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행사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2025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남양주시, '2035 환경계획' 3.3조 투입

주광덕 시장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남양주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2035 남양주시 환경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최종 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환경계획은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에코시티 남양주 조성'을 비전으로, 총 11개 분야 60개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대기·미세먼지 ▲통합물관리 ▲자원순환 ▲환경보건 ▲기후변화 대응 등 생활환경 전반을 포괄한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총 3조 2872억 원(연평균 2739억 원)이 투

입될 예정이다.

중점 전략사업에는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활권 내 녹지공간 확충 ▲남양주형 비점오염 마스터플랜 수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기후 위기·환경재난 대응 환경교육 강화 등이 포함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사진)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 도시 조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 한기대, '스텝' 패키지 과정 확대 운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올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패키지 과정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발표했다.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에 따르면, 2022년 3개 과정으로 시작한 스텝 패키지 과정을 올해 총 21개 과정 74개 과목으로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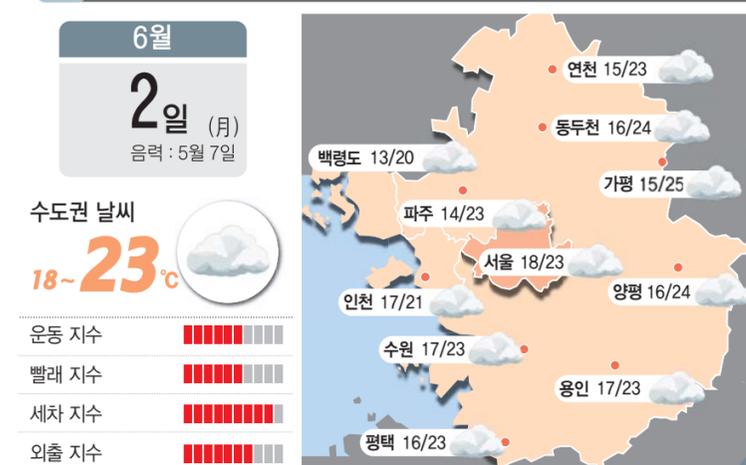
새롭게 추가된 디지털·신기술 분야는 ▲챗지피티(Chat GPT) 개발 활용

▲태양광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인프라 및 시스템 운영관리 ▲정보보안관리 등 4개 과정으로, 기존 12개 과정과 합쳐 총 16개 과정 54개 과목을 운영한다.

일반직무역량분야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 ▲전기자동차 이해와 고장진단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5개 과정 20개 과목을 신설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2 | 해질 / 19:48



### 메트로 한줄뉴스



▲ 미 외국인 유학생, 재입국 거부 두려워 방학에도 귀국 못해 /사진 뉴시스  
▲ 수단 새 총리 카밀 이드리스 취임선서식... 실권자 부르한외 주권위원회 밝혀

▲ 중국, 미 국방 상그릴라 대화 발언 반격... "미국이 아태 안정 해쳐"  
▲ 유럽연합, 미국 철강관세 50%에 "강력 유감... 맞대응" 경고

▲ 미국프로농구 1순위 출신 자이언 윌리엄슨, 강간·학대 혐의로 고소당해  
▲ 러시아 서부서 다리 붕괴 이은 열차 탈선... 최소 7명 사망

### 교육부, 수능시행 기본계획 발표

#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 치른다

#### '통합사회·통합과학' 필수 응시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해소 일부 문항 확대... 배점 세분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2027년 11월 18일에 시행된다. 성적 통지일은 같은 해 12월 10일이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은 2023년 말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새롭게 개편된 체제로 처음 시행되는 시험이다.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과목과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통합형 수능'이 핵심이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된 첫 수능이기도 하다.

국어 영역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으로 구성되며, 수학은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가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에 이과생들이 선택했던 미적분II와 기하를 제외해 문과 수험생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구조다.

가장 큰 변화는 탐구 영역이다. 기존에는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했지만, 앞으로는 전 수험생이 공통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이로 인해 문·이과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탐구 과목을 공부하게 된다.

탐구 과목의 문항 수는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나고, 시험 시간도 과목당 30분에서 40분으로 확대된다. 문항당 배점도 세분화돼 1.5점, 2점, 2.5점 등으로 나뉜다. 수학 영역 역시 2점, 3점, 4점의 세 단계 배점 체계가 도입된다. 반면 국어와

영어는 기존과 같이 2점, 3점으로 유지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하며,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기존 30문항·40분에서 20문항·30분으로 줄어든다. 영어, 한국어,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방식이 유지되고, 국어, 수학,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상대평가로 시행된다.

이번 통합형 수능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하고,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수학 출제 범위가 문과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수학이 강한 이과 성향의 수험생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7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50곳 신규 지원

#### 30일까지 '서울형 강소기업' 모집 근무환경개선금·컨설팅 등 혜택

서울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참여기업 50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에서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엄선해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353개 기업이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는 청년 고용난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 선정 기준이 전면 개편됐다. 기존 정량적 평가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 경쟁력, CEO의 리더십, 워라벨 실천 의지 등 성장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평가하는 '정성지표'를 신설해 기업의 우수성 평가 비중을 강화했다. 또한, 기업의 실질적인 청년친화 역량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중복지고 산발적인 일자리 지표도 통합 및 조정했다.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청년 연령 상한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

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최대 4500만원), 재직청년의 성공적 직장 적응 지원(번아웃 예방, 조직문화 개선), 일·생활균형 교육·컨설팅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2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하며, 50개 기업을 선정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 서울경제진흥원(SBA),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울형 강소기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누리집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39조 2006억 추경예산안 제출

#### 반도체 중심 미래 먹거리 투자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보다 4785억 원 증액한 총 39조 2006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지속된 경기 둔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 교통비 지원 같은 민생 분야부터, 반도체(팹리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투자,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주요 SOC 사업 투자 등 다각적인 분야에 재정을 집중한다.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동안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집행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 기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도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라며 "향후에도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